

부 고

메리 마이클 MARY MICHYL 수녀

ND 4987

필리스 룯 하버밀 Phyllis Ruth HABERMEHL

미국,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

출 생	1936 년 11 월 13 일	켄터키 어거스타
서 원	1960 년 8 월 16 일	켄터키 커빙턴
사 망	2025 년 2 월 22 일	켄터키 커빙턴
매 장	2025 년 2 월 26 일	켄터키 커빙턴



“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.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.” (마태오 11)

필리스 루스 하버밀은 1936 년 11 월 13 일 비올라와 로버트 하버밀 사이에서 태어났다. 필리스는 켄터키주 어거스타에서 11 남매 중 일곱째로 자라났다. 성 어거스틴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어거스타의 성 어거스틴 학교에서 초등 교육을 받았다. 1954 년 어거스타 인디펜던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모어헤드 주립 대학에 1 년 동안 다녔고, 그 후 신시내티 가스 및 전기 회사에서 일했다. 필리스는 자신의 일을 즐겼지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다. 더 큰 소명을 갈망했으며, 1957 년에 노트담 수녀회에 입회하여 1960 년에 서원했다.

메리 마이클 수녀는 빌라 마돈나 대학(현재 토마스 모어 대학교)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초등학교 교육 학사 학위를 받았다. 커빙턴에 있는 성 요한 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시작했고, 오하이오와 알라바마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가르쳤다. 또한 성 알로이시우스 고아원과 교구 가톨릭 어린이 집에서 보육사로 일하면서 14 년 동안 사도직을 수행했다. 수녀는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특히 좋아했다. 때로는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. “수녀는 자신이 아이들의 전부라고 느꼈다.”

1991 년, 관구 본원으로 돌아와 살림, 식사, 경리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. 가장 최근에는 25 년 이상 운전 담당으로 봉사했다. 수녀는 항상 웃음과 미소를 나누며 기꺼이 공동체를 돕고 지원했다.

메리 마이클 수녀는 사랑하는 가족과 수녀들의 보살핌 속에서 2025 년 2 월 22 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. 65 년 동안의 수도 생활 동안, 수녀는 봉사와 헌신의 “멋진 여정” 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. 수녀는 동료 수녀들과 가족을 돕는 일에서 만족감을 얻곤 했다.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끈질긴 열정은 수녀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수많은 재능을 나눌 수 있게 해주었다. 수녀가 많이 그리워질 것이다. 이제 수녀가 선택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느님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.